

중국의 부상과 중산층에 대한 관심 변화: 정치적 주체에서 소비자 주체로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중국

윤종석 (중국 베이징대학교 사회학과 방문연구원)

■ 머리말

중산층이란 말은 항상 문제적이다. 이는 단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의 여러 측면에서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中産階級, 中産階層 또는 중간계급, middle class)를 정의하는 데 힘을 쏟아왔지만, 이를 명확히 정의하고 경계를 지우는 것에는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¹⁾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 체제의 지속가능성은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 점진주의적, 실험주의적 개혁개방은 곧 공간적으로는 ‘점-선-면’으로의 확대를 의미하였고, 도시화, 산업화, 현대화의 진전은 곧 동남연해지방에서부터 내륙지방까지 급속하게 중국 사회를 변화시켜왔다. 중국 중간계급은 사회경제적 체제의 변화에 동반하여 성장하는 주요 집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한편으로는 민주화 차원에서 정치적 변화의 주체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와 문화 측면에서 사회경제적인 소비자 주체로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중산층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는 사회계층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논의한 바 있는데, 중국의 10대 사회계층 내에서 중산층을 규정하기도 하고,²⁾ 실제 그 규

1) 중산층과 중간계급이란 말은 엄밀히 말하면 동일하지 않지만, 최근 연구와 중국 사회 내에서는 ‘중산계급(中産階級)’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며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수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중산층’이란 용어로 표현하고자 한다.

2) 중국의 10대 계층이란 국가 및 사회관리자, 사영기업주, 관리자, 전문기술자, 사무직, 자영업자, 상업서비스종사자, 산업노동자, 농업노동자, 무직·실업·반실업자를 일컫는다. 중산층 연구에서는 이들 중 특히 사영기업주, 관리자, 전문기술자, 사무직, 자영업자, 상업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를 중산

모와 역할, 태도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해외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주목을 받아왔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리(Cheng Li, 李成)의 *China's Emerging Middle Class*(2010)로 이후 많은 중국 중산층에 대한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다.³⁾

최근 중국 사회를 둘러싸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주된 관심을 받는 가운데, 중산층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곧 '내수'와 정치적 안정을 담지할 주체를 필요로 하는데, '중산층'이 바로 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상정되었다. 중산층의 지속적인 규모 확대와 안정적인 소비능력의 증대는 곧 이러한 전환의 핵심동력이 된다. 맥킨지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중산층은 2022년까지 중국 도시 소비자의 7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소득수준은 인민폐 6만 위안에서 22만 9천 위안(USD 9,000~34,000)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위기 이후 중국 정부 또한 '내수진작'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시진핑 정부의 '신형도시화' 전략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도시 지역 중산층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사회 내에서 중산층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그리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산층은 기존 당·국가나 국유기업의 간부, 직원이거나 합자, 외자, 민영기업 등의 전문가, 관리자, 기업 엘리트 집단, 사무직 노동자 등을 포괄한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부상한 집단들의 경우는 교육수준이나 전문적 지식, 기술수준이 일반 대중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질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중국 사회의 중산층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논의 및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⁴⁾

층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수 논의한 바 있다(陸學藝 主編(2010), 『當代中國社會構造』,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3) 2013년 중국어로 번역되어 『中產中國』의 제목으로 출판된 바 있다.

4) 이 글에서는 중산층에 대하여 가장 종합적인 중국 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중국 사회과학원 리춘링(李春玲) 교수의 「中國中產階級的發展狀況」(2011)을 바탕으로 맥킨지 보고서 "Mapping China's Middle Class" (2013. 6), 청리의 *China's Emerging Middle Class*(2010)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 중산층 성장의 배경: 경제성장, 도시화, 고등교육의 확장

리춘링의 연구(2010)에 따르면, 중산층 성장의 배경으로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다.⁵⁾

첫째,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상승이다. 중국의 지난 30여 년간 경제성장은 곧 중산층 성장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중국 GDP는 1978년 3,645억 위안에서 2006년 21조 871억 위안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1978년에 비해 58배에 달하고, 연평균 성장률이 10%를 넘는 것이었다. 소득수준에서 보았을 때, 도시가정의 1인당 평균소득은 1978년 342.4위안에서 2006년 11,759.5위안으로 1978년에 비해 34배가 증가하였다.

둘째, 도시화와 도시인구의 성장이다. 도시의 확장과 도시인구의 증가는 곧 중국 중산층 성장의 조건을 마련했다. 최근 30여 년간 중국 도시는 신속하게 확장되어 왔는데, 중국 도시 수는 1978년 193개에서 2007년 651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도시 상주인구 또한 1978년 1.73억 명에서 2007년 5.94억 명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 말 농촌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3.4%인데, 절대 다수의 농촌인구가 낮은 소득과 낮은 교육수준에 처해 있음을 볼 때 상당수의 중산층은 곧 도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고등교육의 확장과 화이트칼라 집단의 성장이다. 1980년 이래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는 중국 전체 18세 이상 인구 중 1980년대 약 1%에서 2005년 7%로, 도시의 18세 이상 인구 중에서는 1980년대 11%에서 17%로 크게 증가하였다. 1999년에서 2005년 기간, 중국 정부가 실시한 대학정원 확대정책은 곧 고등교육의 수혜를 받은 인구를 크게 증가시켰다. 고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1998년 46.1%에서 2003년 83.4%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학교 재학생은 1998년 413만 명에서 2007년 1,88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대입 연령 청년 중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1998년 10%에서 2007년 23%로 증가하였다. 화이트칼라 집단의 경우 대량의 농촌노동력이 도시로 진입해오면서 1990년대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하락하였으나, 2000년대 다시 상승하여 2005년 도시 18세 이상 인구 중 24.8%가 화이트칼라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상당수의 중산층은 곧 고등교육을 받은 바 있으며 도시에서 화이트칼라 직

5) 李春玲(2011), 「中國中產階級的發展狀況」, 『黑龍江社會科學』, 2011年 第1期.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즉 중국 중산층의 확대는 곧 도시화 및 직업 변화와 연결될 수 있다.

■ 누가 중산층인가: 중산층 규정을 둘러싼 논쟁

중국에서 중산층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서구 학계에서는 그 용어와 구분에 대해서 상당히 느린 속도로 수용되고 있다(그 정치적 함의를 제외하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외국 학자들이 이러한 이슈를 다루는 적절한 경험적 데이터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며, 중국적 맥락에서 중산층이라는 관념을 개념화하는 데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고, 중국 정부가 서구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중산층을 산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것이 그 이유로 꼽힌다.

지난 40여 년간 중국에서 중산층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 말이 되어서야 중국의 학술문헌에서 발견되기 시작했다. 초기에 농촌 사업가와 도시 사영기업가들을 중심으로 이 용어에 대해 검토했지만 중산층을 이러한 집단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공통의 합의가 존재했다. 2000년대 중산층 용어는 중국의 지적 주류에 수용되기 시작했는데, ‘中間(階)層’, ‘中間收入階層’, ‘中等收入群體’라는 용어가 보다 널리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는 두 가지 주요한 흐름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잠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중산층 시장’으로서 중국 소비자의 이미지를 촉진하고자 하는 중국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노력이며, 다른 하나는 ‘중간 소득집단의 규모를 확장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결정이었다.⁶⁾

그렇다면 누가 중산층인가? 그 정의와 경계는 무엇인가? 상당히 논쟁적인 문제인데,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크게 보자면, 다음 네 가지 정도의 방식이 존재한다. 첫째, 소득수준의 경우, 중산층은 반드시 비교적 높고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직업의 경우, 중산계층은 전문적, 관리직종의 직업군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셋째, 교육수준에서, 중산층은 당연히 고등교육을 받은 집단이란 것이다. 넷째, 소비 및 생활방식에서, 중산층은 높은 수준의 소비와 그에 따른 물질생활을 향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여전히 쉽게

6) Cheng, Li(2010), *China's Emerging Middle Clas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의견 일치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여론에서 형성되고 있는 중산층에 대한 규정이다.⁷⁾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답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크게 소득, 직업, 교육 세 가지로 압축될 수는 있다. 즉 비교적 높은 소득을 안정적으로 향유하고, 전문기술직이나 관리직에 종사하며,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소득수준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인정하고 있다. 이 외에 대중매체와 광고에서는 소비 및 생활방식의 특징을 부각하며 중산층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창조하고 있다. 고급 아파트촌에 살며, 고가 브랜드의 차량을 몰고, 유명상표의 의류를 입으며, 자주 여행을 즐기는 생활이 바로 그것이다. 종합해서 보면, 이러한 기준이 가능한 집단은 곧 기업주, CEO 및 주요 관리자 집단, 사회엘리트 등 지식인들이다. 이는 사회학자들이 보는 중산층의 규정과는 상이한데, 이들이 중국 인구 중 10%를 넘지 못하는 소수 인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규정하는 중산층에 대한 정의이다. 정부는 ‘중등소득집단(中等收入群體)’으로 중산층을 규정하곤 하는데, 2002년 11월 장쩌민 총서기가 제16기 공산당 중앙전체회의에서 ‘중등소득집단의 확대’를 정책목표로 제시한 이후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들 중산층의 규모를 추산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⁸⁾ 그러나 여전히 중산층의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어떤 사람은 5,000달러 이상을, 어떤 사람은 30,000달러 이상을 중산층의 기준으로 정하기도 하며, 더욱이 지역 간, 도시-농촌 간 소득수준의 차이가 매우 큰 중국 사회의 현실에서 볼 때 더욱 하나의 기준으로만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학자들이 규정하는 중산층에 대한 정의이다. 중국 사회학자들은 높은 소득 수준과 소비수준을 그 기준으로 설정하곤 한다.⁹⁾ 일부의 경우 단순히 소득수준만으로 판별하여 중산층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이는 중산층이 갖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적 함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사회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직업과 취업신분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설정하곤 하

7) 李春玲(2011), 「中國中產階級的發展狀況」, 『黑龍江社會科學』, 2011年 第1期.

8)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盧漢龍(2005), 「‘中產階級’與小康社會」, 『社會觀察』, 2005年 第1期.

9) 李春玲(2005), 『斷裂與碎片：當代中國社會階層分化實証分析』,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李春玲(2009), 『比較視野下的中產階級形成：過程、影響以及社會經濟後果』,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周曉虹(2005), 『中國中產階層調查』,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는데, 맑스주의와 베버주의적 계급, 계층이론의 전통에 따라 고용주와 피고용자,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구분하는 것을 주로 한다. 즉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는 곧 중산층과 노동자층으로 구분되며, 생산수단 및 재료의 점유 여부는 곧 중산층과 상층의 구분선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사회는 국가가 상당한 자원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특징을 갖기에, 이 또한 주요한 구분선이 된다. 결국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가, 자영업자, 일반 화이트칼라 계층이 바로 중산층을 이룬다. 그러나 중산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사회에서 25~30%로 너무 높다는 비판이 있으며, 아울러 중산층 또한 자기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인식하지 않는다는 문제 또한 존재한다.

■ 중산층의 구조와 규모, 그 특징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중산층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따라 그 집단의 규모와 특징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하나의 사례로서 중국 사회과학원의 통계를 이용한 리춘링(2011)의 자료를 소개한다.

그는 중국 사회계층을 크게 여섯 개의 집단으로 구분한다. ① 기업가계급(2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주), ② 新중산계급(전문기술직 및 관리직), ③ 老중산계급(20인 이하를 고용한 기업주와 자영업주), ④ 주변적 중산계급(일반 공무원, 서비스직 종사자), ⑤ 노동자계급(기술직, 블루칼라, 비기술직), ⑥ 농업노동자이다. 여기서 넓은 의미의 중산층은 곧 기업가계급, 신중산계급, 노중산계급, 주변적 중산계급이며, 좁은 의미의 중산층은 신중산계급이다.¹⁰⁾

<표 1>은 중국 중산층 규모의 성장을 보여주는데, 약 5%의 엘리트집단이 중산층보다 상층에 위치한다고 해도 넓은 의미에서의 중산층은 55% 내외로, 좁은 의미의 중산층은 곧 15~18% 내외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만약 2000년대 전국의 농업인구가 50%라 한다면, 전국적 범위 내에서 넓은 의미의 중산층은 30%, 좁은 의미의 중산층은 8~9%에 달하게 된다.

각각 그 특징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표 2>에서 보여지듯이 확실히 중산층의 성장은 곧 비공유부분의 성장과 연결된다. 비공유

10) 물론 넓은 의미의 중산층으로 볼 때, 중산층은 내부적 차이가 상당히 크며 하나의 집단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특징을 보인다.

〈표 1〉 16~60세 도시인구 중 중산층 비율(1982~2006년)

(단위 : %)

	기업가계급	신중산계급	노중산계급	주변적 중산계급	노동자계급
1982	0.0	13.9	0.1	19.7	66.3
1988	0.1	17.2	3.2	23.8	55.7
1990	0.5	19.6	2.2	19.9	57.8
1995	0.6	22.1	5.5	26.6	45.2
2001*	1.5	16.6	10.3	33.2	38.4
2002	1.1	23.6	11.1	29.1	35.1
2005	1.6	21.0	9.7	31.4	36.3
2006*	0.6	18.8	19.6	25.4	35.7

주 : * 2001년, 2006년 도시데이터는 성전(城镇, 넓은 범위의 도시) 데이터이며 나머지는 성시(城市, 좁은 의미의 도시) 데이터임. 1982, 1990, 2000년 데이터는 전국인구센서스 자료이며, 2005년은 중국 정부의 1% 전국 샘플조사자료, 1988, 1995, 2002년 자료는 중국사회과학원경제연구소 자료, 2001, 2006년 자료는 중국사회과학원사회학연구소 자료임.

자료 : 李春玲(2011).

〈표 2〉 도시 중산층의 부문, 직업, 성별 구성

(단위 : %)

	부문별 분포				직업별 분포			성별 비율
	신중산계급		주변적 중산계급		신중산계급			신중산계급
	공유	비공유	공유	비공유	기술전문가	관료	임원급	
1982	100.0	0.0	100.0	0.0	-	-	-	-
1988	99.6	0.4	99.6	0.6	70.2	21.7	8.1	38.2
1995	99.1	0.9	98.2	1.8	63.7	12.3	23.9	39.9
2002	87.0	13.0	76.9	23.1	66.7	12.2	21.1	38.4
2006	62.2	37.8	54.2	45.8	71.2	10.3	18.5	38.8

자료 : 李春玲(2011).

부문에 속한 중산층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직업구조상으로도 관료 비율이 줄어들고 임원급 비중이 증가했다.

아울러 <표 3>에서 보여지듯이 중산층의 교육기간은 증가해왔으며, 특히 연령구조와 연동하여 볼 때 고학력 젊은 층이 점차 중산층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산층의 소득 및 생활수준은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가계급의 소득 및 생활수준이 가장 높은 가운데, 고학력과 안정된 직업, 전문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신중산계급은 상당한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도시 중산층의 평균 교육기간과 평균 연령

(단위 :년, 세)

	평균 교육기간				평균 연령			
	1988	1995	2002	2006	1988	1995	2002	2006
기업가계급	5.8	9.7	10.9	13.8	41.5	41.2	43.1	35.1
신중산계급	10.4	12.3	13.2	14.9	42.5	45.6	41.6	36.0
노중산계급	6.4	8.1	9.2	9.8	35.1	35.6	39.7	38.3
주변적 중산계급	8.8	10.6	12.2	13.9	38.7	40.7	39.0	34.9
노동자계급	7.3	8.5	9.4	9.3	34.8	41.9	40.7	37.25

자료 : 李春玲(2011).

<표 4> 중산층의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

(단위 : 위안, %)

	기업가계급	신중산계급	노중산계급	주변적 중산계급	노동자계급
연소득* (2006)	46,495	26,422	18,630	16,971	11,371
연소득[북경] (2007)	178,000	81,411	53,122	58,457	26,480
주택 보유 (2005)	-	80.6	-	64.5	59.8
주택 보유[북경] (2007)	100	82.7	71.4	57.6	-
자가용 보유(2006)	100	7.0	6.1	6.7	1.2
자가용 보유[북경] (2007)	100	22.5	19.6	9.2	-

주 : * 2006년 연소득 자료에서 기업가계급은 대형 기업가를 포함하지는 못했기에, 주로 중소기업가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임. 따라서 그 수치는 기업가계급의 추산치보다는 상당히 낮을 것임.

자료 : 李春玲(2011)을 재구성. 2007년 자료는 중국사회과학원사회학연구소가 북경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 정치적 주체에서 소비자 주체로

이상에서 보여주듯이 중산층은 상당한 소득수준과 소비 및 문화수준을 갖고 있다. 앞서 말한 바처럼, 이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한편으로는 민주화 이행과 관련된 정치적 주체로서의 중산층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 주체로서의 상당한 구매력을 지닌 중산층이다.

우선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는 중국의 정치체제와 관련이 있다. 서구 경험에서 볼 때 중산층의 팽창과 정치적 민주화는 역동적인(또는 인과) 관계를 갖는데, 중국 연구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 즉 중국 중산층은 정치적으로 대개 권위주의 체제의 정치적 동맹자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국가와의 정치적·재정적 긴밀한 연계와 사회안정에 대한 공유된 관심 때문이다. Anita Chen은 “왜 중국 중산층은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네 가지로 답변하였다. 즉 유의미한 수의 중산층 구성원이 정치적 토대의 한 부분이고, 중산층의 구성원들은 1인 1표 원칙에 기초한 정치적 평등을 받아들이는 데 심리학적 장벽을 갖는 엘리트주의적 콤플렉스를 가지며, 증대하는 경제적 차이와 사회적 긴장은 새로운 중산층이 민주화를 거부하고 체제 붕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부유층·권력층과 동맹을 형성하는 쪽으로 이끌고, 중산층은 민주주의를 정치적 혼란, 경제적 붕괴, 마피아, 사회적 악들과 연결시키는 경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중국 중산층은 아직 정체성, 권리의식, 뚜렷한 가치 체계를 갖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안정성과 민주주의의 이분법에 반하는, 즉 서로 상호보충적인 것으로 사고하는 중요한 연구들 또한 존재한다.¹¹⁾ 따라서 중국 중산층이 사회적 안정성과 점진적인 정치적 변화에 대해 선호하는 것이, 親공산당, 反민주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특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중산층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연구 또한 중산층의 정치적 역할과 태도가 곧 민주화를 지연시키고 중국 체제의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¹²⁾

다른 한편, 중국 중산층을 소비자 주체로 주목하는 연구들 또한 상당수 존재한다. 그중 대표

11) Cheng, Li(2010), *China's Emerging Middle Clas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2) Jie, Chen(2013), *A Middle Class without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Alvin. Y. So.(2013). *Class and Class Conflict in Post-Socialist China*, World Scientific.

적인 것이 바로 맥킨지(2013)의 보고서이다.¹³⁾ 이들은 중국 중산층의 규모뿐만 아니라 소득 및 소비수준의 급격한 증가에 주목한다. 구매력 수준에서 중국의 중산층은 브라질과 이탈리아의 소득수준 사이에 있으며, 2012년에는 중국 도시인구의 68%가 이에 해당했다. 더욱이 2022년에는 도시 호구 소지자의 소득이 적어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더욱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2세대 중국 중산층 소비자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서구적인 방식으로 쇼핑하는 경향을 보인다. 2세대 중산층 소비자들은 1세대 소비자보다 디지털기기 등 보다 새로운 것들에 대한 구매욕구가 더욱 강하며,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행위를 통해 감정적 만족을 추구하고자 한다. 동남연해지역의 대도시지역은 이러한 2세대 중산층 소비의 핵심지역이며, 중서부 내륙지방의 발전은 곧 이 지역의 중산층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바이다. 맥킨지는 이러한 중국 중산층의 규모와 다양성의 증대가 곧 중국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그들의 취향을 잘 고려한 제품의 선택과 개발을 조언하였다.

■ 맺음말

1990년대 개혁개방의 심화와 더불어 중국 중산층의 성장은 매우 극적이었으며, 중국 사회 안팎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더욱이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내수와 소비에 핵심적인 중국 중산층의 안정적인 성장은 곧 체제 안정의 주요 지표인 동시에, 세계적인 경제위기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란 희망을 낳았다. 다만 문제는 중산층에 대한 여러 정의가 충돌하면서 보여주듯이, 중국 사회 내부적으로 ‘중산층’에 대한 규정에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곧 높은 소득과 안정적인 직장, 풍족한 물질 소비로 표상되는 중산층의 이미지와 정책 및 학술연구상에서의 중산층 분류가 일반 대중들에게 상당한 공감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2010년을 전후로 중산층으로 분류된 것에 대하여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불만을 쏟아낸 것은 바로 대표적 사례이다. 『2010년북경사회건설분석보고』(2010年北京社會建設分析報告)에

13) Dominic Barton et al.(2013), "Mapping China's Middle Class", McKinsey Quarterly June 2013.

서는 북경 도시인구의 40%가 넘는 540만 명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그중 68.5%가 중하산층(中下産層)에 해당한다며 불만을 쏟아낸 바 있다. 이들의 소득수준으로는 높은 부동산가격과 자동차 등의 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노예’, ‘차 노예’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서 이러한 규정에 대한 반발을 드러낸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중산층에 대한 규정 및 사회적 역할,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역학관계에 보다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KLI**